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0년 10월 후원미사는 19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1

### \* 새로운 후원 가족을 환영합니다!

김희정 마리아고례피, 김주연 비비안나, 양경복님께서 후원 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0년 8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내역

수입 총액 14,053,130

####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체 찬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5,2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2,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보수공사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1,2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교네지역아동센터	5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등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등
	중국공동체	100,000	의료비 등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0,325,000	
지원비	노동사목회관	2,4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장기수선총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1,328,130	운영비(행사비, 우편비 등)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14,053,130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좋은이웃

www.seoulmigrant.net

2020. 09 / 제51호

펴낸날 2020. 09. 21.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이광휘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 수녀님글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찬미예수님.

저는 다문화 어린이들의 보금자리 베들레헴어린이집 원장 신선영 라파엘라 수녀(살레시오수녀회)입니다. 이 주민들을 위해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눠주시는 후원자님들께 지면을 통해 직접 감사와 기도를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조금 특별한 집입니다. 통학하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홀로된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지방에서 일하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24시간 지내는 어린이들도 4분의 1정도 됩니다.

어린이들이 일찍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며 겪는 분리불안과 언어,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치료하기위해 미술(심리)치료, 언어치료, 음악프로그램 등을 준비하여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린이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소통의 문제, 주거문제, 외국인들의 의료시설 이용문제 등등 다양한 일들에 열려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성모님께서 아기예수님을 낳으시기 위해 찾아 헤매던' 베들레헴 마굿간이 연상되는 가난한 아기들을 위한 주님의 집입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의 가정도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심합니다. 일자리가 없어 월세금조차 낼 수 없어 곧 길거리로 쉼터로 내몰려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피부색 때문에, 언어 때문에, 미등록이주민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소속감조차 없는 이들에게는 더 어둡고 힘든 시기입니다.

가난한 이주민들을 위해 마음을 열어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손길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후원자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화를 기도하며 순교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옥중에서 쓰신 회유문(1846년 8월 말)을 들려드리며 마무리 인사드립니다.

"교우들 보아라, 우리 벗아 생각하고 생각할 지어다. ... 온갖 세상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같이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재(하느님)를 알지 못하면 난 보람이 없고, ... 이런 곤난 때는 주의 시험을 받아 세속과 마귀를 쳐 공덕을 크게 세울 때니 부디 환난에 놀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간 성인 성녀의 자취를 가르쳐 성교회의 영광을 더하고 천주의 착실한 군사와 의재(의로운 아들)됨을 증거하고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의 공륜(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다)하실 때를 기다리라."

"이런 큰 어려움도 역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너희가 감수 인내하여 주님을 위하고 오직 주님께 슬피 빌어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라. 내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대사에 어찌 거리낌이 없으랴 그러나 하느님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내게 비겨 더 착실한 목자를 상주실 것이니 부디 설워말고 큰사랑을 이뤄 한 몸같이 주를 섬기다가 한가지로 영원히 천주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천만 바란다."

베들레헴의 어린이들이 자라서 엄마의 고향에서 아빠의 나라에서 가슴 따뜻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베들레헴 어린이집 라파엘라 수녀

### 공동체 소식

#### 마고네지역아동센터 소식\*

삼성꿈장학재단 후원으로 9개 지역아동센터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축구교실에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7명의 학생들도 참여하였습니다. 1년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동영상 강의를 들었고 하반기에는 처음으로 정릉풋살장을 대여하여 한 번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심해져 사회적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어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랜만에 맘껏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었는데 그마저 중단되어 학생들의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사태가 진정되어 학생들이 맘껏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 세계 이민의 날 소식\*



9월 27일은 2020년 제106차 세계 이민의 날입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가톨릭교회가 정한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20년 제106차 세계 이민의 날을 맞아, 2018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를 통하여 발표하신 "환대, 보호, 증진, 통합"이라는 사목 과제를 더 발전시켜 '이주민'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이해하기 위하여 알아야 합니다. 둘째, 봉사하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 가야 합니다. 셋째, 화해하기 위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성장하기 위하여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다섯째, 발전하기 위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여섯째, 건설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2020년, 한국 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위기 해결이라는 과제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헤로데의 박해를 피하여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하셔야 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 옆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주민'을 돌아봅시다. 나아가 우리 모두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2020년 9월 27일, 이민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신철 주교). → 담화문은 이주사목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을(<http://www.seoulmigrant.net/>) 참조해주시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도 이민의 날 축복 나눔 미사를 매년 이주민들과 함께 하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아쉽게도 취소하였습니다. 각 국가별 공동체에서 하는 주일 미사 안에서 함께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이주사목위원회 심벌마크 변경 소식\*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TTEE

이주사목위원회의 심벌마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만 했던 나자렛의 성가정이 겪은 역경에서, 우리는 모든 이민들, 특히 난민, 망명자, 추방자, 실향민, 박해받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주사목위원회 심벌마크는 모든 이민 가정 안에서 함께 계시고 보호해주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연재 기획 고선정 자매님 연재글\*

저희 위원회의 후원 회원이면서 작가로 활동 중이신 고선정 자매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스리랑카 문화와 이주민에 관한 글을 8월부터 연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

작년 12월에 실시된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를 253만 명으로 보고했습니다. 그중 스리랑카인은 3만 명 남짓인데도, 대사관 업무나 사업 등의 이유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1970~8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스리랑카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국을 떠나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말고도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독일 등 중동과 유럽으로도 많은 인구가 진출해 있습니다. 실제 이탈리아에서는 곳곳에서 스리랑카 사람들을 보았는데, 때로는 스무 명 정도의 대가족을 만난 적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스리랑카 이민자들은 주로 평택, 안산, 서산, 여수 등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이나 김치 공장 등에 취업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농업과 어업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며 살아갑니다. 개중에는 여행 비자로 들어와 미등록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고 공식적인 취업 알선 기관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한국어 시험에는 약 200달러를 내고 응시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스리랑카인들에게는 거액이어서 누구나 쉽사리 도전할 수 없지만, 시험 통과와 더불어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만 한다면 비로소 '코리안 드림'을 눈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들여 옮겨간 타지에서 사는 녹록지 않습니다. 평택에 있는 스리랑카인들의 불교 사원인 '마하위하라야'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부주지 스님으로 계셨던 왕기사 스님을 찾아갔다가 공장에서 일하던 중 오른쪽 손가락 세 개가 잘려나간 스리랑카 이주민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 일이 공장에서는 왕왕 일어난다고 하니 어찌 보면 이주민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타지 국민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한 신체는 되돌릴 수 없으니 상해 보험금도 위로금 그 이상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뿐일까요. 타지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려면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 또는 외지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법적, 사회적 장벽에도 부딪치게 됩니다. 결국 좀처럼 섞여들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 조용히 머무르다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스리랑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스리랑카인이 제게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세요?'라고 물어왔는데 저는 반가움보다는 그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미안함을 먼저 느껴야 했습니다. 한때 우스갯소리처럼 유행했던 '사장님 내빠요'라는 말이 떠올라서였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지 내심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한국에 갔기 때문에 법적 보호망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 했지만, 그런 유행어를 떠올리며 움츠러들어야 할 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했을 것은 구구절절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우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사회가 이민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또는 캐나다나 독일, 호주 등으로 수많은 이민자를 떠나보낸 나라입니다. 이주민과 문화적 풍토가 달라 발생하는 소소한 갈등은 하느님께서 주신 '환대의 소명'을 바탕으로 신앙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숭선해야 할 참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